

제 10 장 ICCD, 스탠다드, 인증

**The ICCD,
The International Clubhous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클럽하우스 프로그램 스탠다드

Rudyard Propst, Why and How They Were Developed

클럽하우스모델의 국제적 확산

**Rudyard Propst, Stages in realizing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single way of working : the Clubhouse Model**

클럽하우스 프로그램 스탠다드 :

왜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Rudyard N. Propst

클럽하우스가 발전해가면서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을 표준화(standard)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977년까지 클럽하우스는 뉴욕 파운틴하우스 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그저 클럽하우스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 몇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1976년 클럽하우스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의 특별정신건강기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고, 클럽하우스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에는 이미 클럽하우스로 운영하는 기관에 계속해서 자문을 하거나 질적인 것을 인증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1988년에 로빈우드 재단과 자선신탁, 공익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클럽하우스 확산 프로그램(NCEP - National Clubhouse Expansion Program)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클럽하우스가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는 50여명의 위원과 직원들 가족과 소비자 단체의 대표, 그리고 다른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함께 일했다. NCEP의 직원은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 위한 '스탠다드 개발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스탠다드를 만드는 과정에는 NCEP 직원 뿐 아니라, 모든 클럽하우스의 직원과 회원도 참여하였다. 1989년 제 5회 클럽하우스 국제세미나가 열리기 전에, 클럽하우스의 회원과 직원에게 표준화에 대한 제안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각 클럽하우스에서 제안한 의견을 공통된 주제에 따라 묶었고 그 초안을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과 직원 650여명에게 발표하였다. 그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합의를 거쳐서 스탠다드 첫 초안으로 채택하였다. 위원들은 여러 가지 제안을 다시 확실하게 검토했고, 두 번째 초안을 만들어 전 세계 클럽하우스로 보냈다. 각 클럽하우스는 또 더 여러 가지 제안을 덧붙였고, 결국 1990년 12월,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의 스탠다드를 공표하였다. 스탠다드는 사문서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문서로서 현재도 2년마다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1991년 봄에는 전 세계 클럽하우스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클럽하우스의 약 90%가 35개 조항의 스탠다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같은 해 제 6회 국제세미나가 개최되기 전에, 스탠다드를 더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을 정리해서 모든 클럽하우스에 발송 하였다. 그 결과 몇몇 내용을 개정했고 주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스탠다드 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탠다드는 소수 사람만의 의견으로 만들고 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클럽하우스와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의견으로 클럽하우스의 철학과 실천이 표준화된 것이다.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의 목적과 특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는 무엇인가?” 하는 매우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스탠다드는 또한 회원의 기본적 인권의 선언이기도 하다.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가 잘 운영되도록 해주며, 세계 정신건강의 질적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Rudyard n. Propst 파운틴하우스 ICCD의 전 관장이었다.

클럽하우스 모델의 국제적인 확산

Rudyard . n . Propst

클럽하우스는 1940년대 말, 록클랜드 주립병원을 퇴원한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환자에서 인간으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클럽하우스 회원은 전 세계에 약 25,000명이 된다. (이는 중소 도시를 이루는 정도의 인구수이다.) 사람마다 살면서 경험한 것이 다르겠지만, 클럽하우스를 이용한 한 회원의 경험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내가 처음 클럽하우스에 왔을 때 나는 병원에서 막 퇴원해서 집도 없고, 친구나 가족과 연락도 끊긴 상황이었다. 클럽하우스를 안내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곳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과 나 같이 초라한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내 자신이 인류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클럽하우스의 한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회원이 되고 나서 나는 한 참 동안은 그냥 부서에 앉아만 있었다. 그러다가 식품부에서의 일을 돕기 시작했고, 부엌 바닥 닦기, 바닥에 광을 내기, 쓰레기 버리기, 요리하기 등의 일을 했다. 특히 요리하는 것은 지금도 좋아한다.

나는 클럽하우스에서 주거지를 찾는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클리닉 찾는 것에 도움을 받았다. 또, 클럽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안내 해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 나는 매일 출근을 했고, 몇 명의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한 2년쯤 뒤에, 나는 내가 입원 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에는 연중행사로 입원을 했었다.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나는 실제로 봉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았다.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결국 성공적으로 임시취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다시 가족들과 만났으며, 가족들과 휴일을 같이 보내는 시간도 가졌다. 두 가지 모두 더 없이 행복한 일이었다. 병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었는데, 클럽하우스 도움으로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공부도 꽤 잘했고 전임제로 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 일도 성공적이었다. 지금은 큰 은행의 컴퓨터 관리자로 일하게 되어 사람들을 감독하며 일년에 \$35,000(약 4000만원)을 벌고 있다. 지금도 거의 매 주마다 클럽하우스에 가고, 거기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낸다. 클럽하우스는 내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사회에 잘 적응한 성공사례이다. 클럽하우스에는 이외에도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공을 경험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더 많다. 클럽하우스는 탈시설화 이후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직업을 갖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클럽하우스 모델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알아보려면, 먼저 1948년에서 1977년 사이에 생겼던 일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에는 클럽하우스가 미국 내에 알려지게 되어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 모델을 적용하는 기관은 파운틴하우스 Fountain house 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방문은 했지만 자신의 기관에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는데 기본이 되는 철학의 배경이 당시 다른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과는 180도로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파운틴하우스의 유명한 관장인 존 비어드 John Beard 와 나를 비롯한 몇 사람은 클럽하우스의 철학은 지역이나 종교, 성별, 문화, 국가를 초월한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클럽하우스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정신장애인이 ‘인간’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을 즉시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클럽하우스라는 공동체는 매우 단순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클럽하우스가 기존의 인간서비스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기도 했다. 심지어 1980년대에 정신건강관련 전문가들은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일하는 것을 말하는 자체가 쓸데없거나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전적으로 다르고, 약물복용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일하는 것·친구를 사귀는 것·독립적인 생활은 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클럽하우스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너무 어리석은 나머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는 전문가적이지 못하며, 따라하거나 발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1977년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센터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회는 NIMH(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산하 특별훈련 기구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서에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는 모델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담고 있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클럽하우스 모델을 훈련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3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이후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는 200개가 넘는 클럽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클럽하우스 모델의 확산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선입견, 스티그

마, 의존성, 소외감 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공동체에 원가를 기여하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구성원 간에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눔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회원제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이 되는 자격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에서 직원은 회원과 평등한 관계를 갖는다. 직원과 회원은 동료이고 친구이지, 치료자나 관리자가 아니다. 직원은 별도의 회의에서 회원의 행동이나 문제, 미래에 대해 의논하지 않는다. 회원과 직원은 클럽하우스의 활동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결정도 함께 내린다. 기록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원과 직원이 함께 기록하고 보관해 둔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회원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잊고 있었거나 아직 배우지 못했던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원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운 사회기술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환자”로서 사회 밑바닥의 상황에 있던 회원들이 다른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경험한 스티그마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클럽하우스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참여하는 활동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에게 의존해 오던 존재에서 남들이 의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직원이 클럽하우스에서 하는 주된 역할은 클럽하우스가 잘 운영되도록 회원이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클럽하우스는 일중심의 일과로 구성되어있고 회원과 직원은 모든 일을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하우스에서 강조하는 것은 회원의 재능과 능력이다. 과거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증상이나 병리에만 초점을 두고 능력은 무시해 왔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에서 관심 갖는 것은 기존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정신병원이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병의 증상이 주된 관심이었지 병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와 달리, 클럽하우스는 자신감, 자존감 등을 향상시켜주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클럽하우스에서는 회원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활용해 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수 십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사회에서 소외 당해왔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은 직업을 찾고 질병과 싸우기 보다는 의존해서 살아가야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록 했다.

클럽하우스 안에서의 관계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므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일을 함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실패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회원과 직원은 우정, 상호 존경심 그리고 공동의 자신감을 발전시키게 된다. 직원이 지금까지는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 도움을 받고자하는 클라이언트나 환자에게는 아무리 잘 해왔다 하더라도 50인분의 점심을 준비할 때는 지금까지의 역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 받기, 타이핑, 기록, 시

장보기, 식사준비, 유리창 청소, 바닥청소, 연구자료 입력 등과 같은 클럽하우스의 일을 함께 해 나가면서 서로 평등해지고, 무엇보다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일을 함께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 약물, 주거, 치료 등이 클럽하우스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원과 회원 또는 회원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일을 강조해야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함께 일을 하면서, 회원과 직원은 그 특정한 임무를 해결해 가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알게 된다. 또한 기존에 하던 대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서 상담-“사회 복지사의 일”(social-worked)-을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거나, 봉투 작업을 하는 등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일 중심의 일과를 통해 형성된 믿음과 상호간의 존경심만으로도 그 문제의 심각한 정도가 줄어들거나 문제를 쉽게 해결해갈 수 있게 된다.

보통 정신질환은 성인 초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교양 과목이나 고등학교 수업 내용에 준하는 수업을 하거나 회원들이 지역사회내의 학교에서 기술훈련을 받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 하도록 도와준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을 소개해 주거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집단 모임도 진행한다.

회원들은 클럽하우스에서 자신감을 얻고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존 비어드가 처음 창안했던, 임시취업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클럽하우스에서 직원은 회원이 일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단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의 욕구를 중요시한다. 임시취업과 같은 시간제 취업의 경험이 쌓이면 독립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클럽하우스는 회원들이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미래에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시민으로 바뀌도록 돕는다. 독립취업을 한 회원도 저녁과 주말프로그램, 취업 지원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권리로서, 본인이 원한다면 그 권리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

정신장애로 인해 사람들은 고립되고 고독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동안 정신장애인은 입퇴원 하면서 모든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 병 때문에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정신장애로 인한 고독 때문에 사회일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 환영받는 느낌, 서로 돕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 회원이 되면 이런 생각이 즉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회원의 권리가 4가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소(클럽하우스)에 올 수 있는 권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권리, 그 장소(클럽하우스)로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권리이다.

클럽하우스의 또 다른 장점은 프로그램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최근 뉴욕 주의 입원 비용은 연간 \$120,000 (약 1억 3천만원)이지만 파운틴하우스의 주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와 기타 지지해주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연간 평균 \$21,000 (약 2천 2백만원)이 든

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입원율이 낮다. 주거 비용을 제외하고 낮병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 (약10만원)인데 파운틴하우스에서 한 회원에게 드는 비용은 \$35(약 3만5천원)이다. 미국 전체 클럽하우스에서 회원 1인에게 드는 비용의 평균은 \$4,162(약 4백2십만원)이다. 미국 내 클럽하우스의 50퍼센트가 일년동안의 개인에게 \$2,600에서 \$5,000 정도의 비용을 사용한다. 미국이외의 국제적으로는 회원 1인당 평균 약 \$3,374(약 3백 5십만원)의 비용이 든다.

확산 되는 첫단계 1977 - 1987 : 훈련 프로그램 실시,

비전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클럽하우스에 관련된 내용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 훈련 계획

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두가지의 요소가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첫째는 파운틴하우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충분한 경험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지금까지의 결과가 미약했던 이유가 훈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만 하는 방법이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훈련 받는 사람이나 기관에 더 많은 과제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훈련 대상도 신규로 클럽하우스 개원하려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 새로 문을 열게 되는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관장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했으며, 1992년부터는 아직 개원하지 않았더라도 회원이나 회원이 될 사람도 훈련 과정에 참석하도록 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 이미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어서 학생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동료(colleague)라고 불렀다. 3주 훈련의 셋째 주에는 행정책임을 지는 사람(예를 들면 이사회 임원이나, 관장, 정신보건서비스의 책임자)이 적어도 한명은 참가해서, 프로그램을 이해하도록 하고, 돌아가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새로 개원하려는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에 참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나서 참석하도록 하였는데, 그 조건이란 클럽하우스를 새로 설립하거나 운영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예산과 설립 장소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건을 갖춘 후에 다시 3주 훈련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파운틴하우스의 훈련팀은 2명의 직원과 2~3명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클럽하우스의 근본적 원리와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할 만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훈련팀 외에도 클럽하우스 내의 모든 회원과 직원도 프로그램에 몸담고 있는 동료로서, 3주 간의 일과 동안 지원한다. 훈련 받는 사람들은 훈련팀과 계속 만나고 토론을 하면서 클럽하우스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처음 NIMH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서(1977~1987), 클럽하우스 모델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도 생기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는 200개가 넘는 클럽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파키스탄에도 클럽하우스가 생겼다.

훈련을 통해서 클럽하우스의 철학과 실천방법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고, 발전되어 갈 수 있게 되었다. 클럽하우스는 계속해서 늘어갔는데 이는 훈련 뿐 아니라 상호간에 소식을 발송하고, 방문하고,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는 모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기도 했다. 몇몇 클럽하우스는 캠프를 같이 가거나 휴일에 행사를 같이 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파운틴하우스에서 시작했거나 규칙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서로 지원하면서 클럽하우스가 강화되고 확산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결국 파운틴하우스에서는 서로 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주소록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소록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 클럽하우스가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1981년 이후 매 2년 마다 개최되고 있는 클럽하우스 모델에 대한 세미나 때문이다. 2회까지의 세미나는 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많은 클럽하우스에서 참가해서,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바뀌어갔다. 현재까지도 세미나에서는 회원과 직원이 비슷한 비율로 참석해서 5일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처음에 직원들은 전문가의 모임에 회원이 참여한다는 것을 매우 놀라워했다. 그러나 수십 개의 클럽하우스에서 온, 참여인원의 반을 차지하는 회원과 같이 생활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소비자들이 정신 건강 실천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클럽하우스만이 회원과 직원이 동료로서 클럽하우스의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다.

2) 그 외 다른 훈련지

80년대 초반에는 훈련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져서 파운틴하우스에서 그 수를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곳에서도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 다른 곳에서도 훈련을 실시한다면 지금까지 파운틴하우스에서 했던 훈련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다른 기관에서도 3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 지역내에 있는 클럽하우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1980년에는 미저리주와 버지니아주, 캐나다의 토론토에 훈련 기관이 더 생기게 되었다.

확산 되는 두 번째 단계 1988-1992

1987년 이후 클럽하우스가 발전되어 가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규 클럽하우스를 포함해서 여러 클럽하우스는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질문했고

자신들의 클럽하우스에 방문해서 자문 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다른 기관을 방문해서 자문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없었다. 어느 후원 단체도 이런 상호교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1987년 중반까지도 파운틴하우스에서는 다른 클럽하우스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방문해서 하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많은 클럽하우스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클럽하우스 모델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 어려워 질 것이 분명했다.

클럽하우스가 유명해지자 많은 기관들이 그들이 하는 일은 "클럽하우스모델을 바탕으로 운영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로 어떤 측면에서는 파운틴하우스의 평판이 심하게 나빠졌다. 그 중에서도 보거스 Bogus라는 사람이 파운틴하우스에 대해서 한 말 때문에 가족과 기관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파운틴하우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의 질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1987년 로버트 우드 존슨 Robert Wood Johnson 재단에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공모했다. 파운틴하우스는 "클럽하우스 확장 프로그램(NCEP - National Clubhouse Expansion Program)"이라는 제목으로 프로포절을 제출했다. 이 프로포절은 4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한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클럽하우스의 지침이 실제로 클럽하우스를 잘 적용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개별 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함으로서 클럽하우스가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3주간의 훈련 프로그램 과정 중에 임시취업에 대해 훈련 하는 과정을 포함시킨다. 넷째, 적어도 6개 주에 클럽하우스가 새로 설립되도록 지원한다.

1988년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은 위에서 언급된 일을 하도록 파운틴하우스에 기금을 지원했다.

1)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을 위한 스탠다드의 제정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파운틴하우스에서는 다음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

첫째, 운영을 잘하고 있는 12곳의 클럽하우스에 스탠다드의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둘째,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8곳의 클럽하우스 직원과 회원이 며칠 간 만나서 클럽하우스 스탠다드 초안을 만들어냈다. 초안은 회원, 관계, 공간, 일 중심의 일과, 취업, 주거, 재정·행정 7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1989년 루이스주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 클럽하우스 세미나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미나에 참석한 600여명의 직원과 회원은 몇 개의 내용을 더 추가하고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등 모든 부분에 합의를 도출해 냈다. 그 후 스탠다드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1991년 개최된 세미나에서

다시 스탠다드를 검토하여, 많은 사람의 의견일치를 거친 후, 세계의 클럽하우스에도 공표하였다. (스탠다드는 변경과 추가가 가능하다. 매 2년마다 변화가 필요한지를 묻는 공문을 각 클럽하우스에 발송하고 국제 세미나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된다) 스탠다드는 즉시 수많은 클럽하우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스탠다드는 클럽하우스 모델의 실천 방법과 철학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2) 클럽하우스 발전을 위한 임원회 구성

자신의 클럽하우스를 방문해서 자문 해주길 바라는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운틴하우스에서는 기관운영을 잘하고 있는 클럽하우스의 직원과 회원들로 임원회를 구성하였다. 원래 대학의 교수진을 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임원회(faculty)’ 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대학에서는 클럽하우스의 철학이나 실천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대학은 클럽하우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클럽하우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클럽하우스 밖에 없었다. 임원회에서는 상호 교류를 지원할 뿐 아니라 3주 훈련 이후에도 훈련의 과정이 지속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클럽하우스가 “제한이 나 벽이 없는 대학”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을 위해 스탠다드를 발표한 이후 자문을 하러 개별 기관을 방문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었다. 하나는 임원진을 환영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관 내에서 스탠다드를 검토하고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비교한 후 자신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방문을 거절한 것이다. 4년 동안 전체 클럽하우스 중에서 1/3이 넘는 약 125개의 기관이 클럽하우스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소록에서 이름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때 클럽하우스에서 훈련 받기는 했지만, 클럽하우스 모델에 맞지 않는 기관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훈련 받은 직원이 퇴사하거나, 지원 재단이 바뀌거나, 모 기관에서 인사를 새로 하거나 정책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클럽하우스의 프로그램이 퇴색되었기 때문이었다.

3) 새로운 훈련기관

약 125개 클럽하우스가 없어지긴 했어도, 훈련을 받으려는 곳은 더 많았다. 그래서 새로운 훈련 시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4년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사추세츠, 워싱턴의 3 곳에 훈련기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3개 기관은 스탠다드의 모든 기준을 잘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관장과, 훈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회원들과 자체적으로 3주 훈련을 실시였다. 파운틴하우스에서는 다른 훈련 기관도 동일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3주간의 훈련내용을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년 회의를 통해서 훈련 내용을 변경하고 보완하고 있다.

4) 임시취업의 강화

3주 훈련 과정 중에 임시취업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였다. 왜냐하면 클럽하우스에서는 회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장을 개발하거나, 대체근무를 해주며, 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 취업이 연금이나 사회보장에 주는 영향, 이 모든 것에 대해 기록해 두도록 했다. 왜냐하면 경험 없는 직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회원이 일반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운틴하우스 취업담당 책임자였던 랄프 빌비는, 취업과 관련된 글을 쓰고, 취업장을 방문하도록 하며, 직접 일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클럽하우스가 회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임시취업과 관련된 훈련도 다른 훈련기관에서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5) 클럽하우스가 없었던 주에서의 클럽하우스 확산

훈련 기관이 3군데 더 생기면서 한 달에 약 두개 정도의 신규 클럽하우스가 문을 열기 시작했다. 100개 이상의 클럽하우스가 탈퇴 하기는 했지만 1987년경에는 38개 주에서 172개의 클럽하우스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12개의 주에 클럽하우스가 처음 문을 열었다.

확산의 세번째 단계 : 클럽하우스 발전을 위한 국제 기구 설립

NCEP에서 보조금을 받던 막바지에는 클럽하우스가 더 강해지고, 직원과 회원이 함께 하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스탠다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NCEP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직원과 회원은 이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스탠다드를 잘 만들어 냈고, 임원진을 구성해서 클럽하우스 발전을 도모하고, 3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클럽하우스를 확장해 나간 것은 결국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1987년 시애틀에서 열린 제 4회 국제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공식적인 조직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체 구성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약 400명에게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거의 대부분의 클럽하우스는 조직체 구성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미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공식적인 클럽하우스 기구가 설립되기까지 선행되어야 할일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990년까지 임원진은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 자문하는 일도 하면서,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기구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1990년 가을, 연례 임원진 모임에서 국제 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국제 센터(ICCD - International center for Clubhouse Development) 가 설립되어야한다고 결의하였고 이 기관의 운영방법과 형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1991년, 제 6회 국제 세미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었다. 그 후 주소록에 등재된 모든 클럽하우스에게 국제 센터 건립을 찬성여부를 물어보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약 92%가 찬성 하였고 약 70%의

기관은 센터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많은 기관의 찬성으로 센터 건립이 촉진되었다.

NCEP에서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클럽하우스를 고려해 본다면 새로운 조직체는 국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하였는데, 하나는 센터가 클럽하우스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센터가 위치할 클럽하우스는 파운틴하우스가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센터가 제 역할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993년, 제 7회 국제 세미나에서 파운틴하우스의 대표 이사였던 존 잉그람 John Ingram은 ICCD가 공식기구로 설립되었음을 발표했다.

세미나가 끝난 이후 임원진은 다시 모여서 센터에 대한 마지막 회의를 했다. 이 회의가 마지막이었던 이유는 NECP의 기금을 다 써서 다음 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임원진의 회의에서는 센터가 그 역할과 구성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ICCD에서 일할 첫 관장을 선출하므로써 임시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운영위원회는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주의 베이브리지 Baybridge 의 관장인 조엘 코코란 Joel Cocoran 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5번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한 일은 센터의 기능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ICCD의 핵심 하부기구(예를 들면 클럽하우스 발전 임원단-faculty)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센터는 NCEP의 지원금이 끊어진 이후 중단되던 자문을 다시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질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지원하며,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의 스탠다드를 확립하여 클럽하우스가 발전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기능 중에는 모든 클럽하우스가 공통으로 관심 갖는 문제에 함께 대응해 가는 것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클럽하우스의 비용·효율성·효과성 등을 연구하는 것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워체스터 Worcester에서 열린 임원진 회의에는 자문을 위해 방문 한 후에 인증 Certification 해주는 안건을 논의하였다. 만약 인증 제도를 두어서 클럽하우스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간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상황은 과거 5년 전, 즉 NECP 프로젝트로 보조를 받기 이전 상태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문제 의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 토론을 한 후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ICCD에서는 센터 내에 클럽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 했다. 클럽하우스의 중요한 원칙은 직원과 회원이 함께 운영에 참여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ICCD도 이를 반영하여 전 세계 클럽하우스의 직원과 회원이 참여하도록 조직을 구성하였다. ICCD의 직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ICCD 산하에 7개의 기구를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 (1)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센터를 운영 한다 ; (2) 자문 심의회 - ICCD 직원과 이사회 양쪽에게 조언을 해 주고 지지 한다 ; (3) 임원진 (faculty) - 자문과 인증을 위한 방문을 하고, 또 클럽하우스 발전을 도모한다 ; (4) 교육훈련 기관 - 동일한 내용과 질로 클럽하우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 (5) 지역사회 운영위원회 - 소비자와 가족들의 대표자 집단 또한 정신건강 정부 관계자로 구성하며, 이들은 정신건강 공동체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ICCD 직원들과 만난다 ; (6) 연구자문모임 - ICCD가 요청하는 연구를 맡아 진행 한다 ; (7) 일반인 자문 모임 - 회원들이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삶의 질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임에서 회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이후에 위의 역할 중 ICCD의 이사회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첫째 4월까지는 주디스 가터 Judith R Garther가 이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가 재직할 당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만들었다.

ICCD의 미션은 클럽하우스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조정하는 것, 정신장애인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 주거, 교육, 친교의 기회와 존중감, 희망, 서로간의 교제 등을 통하여 회복되어 가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센터는 클럽하우스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는 훈련, 자문, 인증, 연구, 옹호활동, 클럽하우스간의 정보교환, 효과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결론

현재 클럽하우스 주소록에 등재된 기관은 305개 이다. 클럽하우스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한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26개국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이 중 318개 기관이 ICCD의 회원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3년 현재 134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8개의 훈련 기관이 있으며 2개의 기관이 더 훈련 기관이 될 예정인데 하나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국에 위치할 예정이다. 동유럽과 서유럽에서도 클럽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직 클럽하우스에 관심이 없는 곳으로는 중부 및 남부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아프리카, 인디아, 환태평양 지역이 있다.

정신질환은 국가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으므로,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기초를 두고 있는 클럽하우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상황이나 문화로 인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졌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은 비슷하지만,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나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고독함이나, 의존하는 것이나, 스티그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경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여 서로간의 우정을 나누는 일로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어떤 환경 하에서, 어떻게 클럽하우스가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념을 갖고 일한 직원과 회원, 그리고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 매우 중요한 클럽하우스 스탠다드가 만들어졌던 것, 서로가 잘되기 위해서 상호 자문을 시작했던 것, 좋은 클럽하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 과정을 만든 것 등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럽하우스 모델이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데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 외에도 ‘파운틴하우스’가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반대에 부딪치는 속에서도 리더쉽을 보여준 것, 세미나가 2년마다 꾸준히 개최된 점, 다른 지역에도 좋은 클럽하우스가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 지역에서 연맹체가 구성되어 서로 지원을 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한 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ICCD의 역할로 인해, 다음 시대에서도 클럽하우스의 성장, 발전,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Rudyard n. Propst 파운틴하우스 ICCD의 전 관장이었다.

본 저널은 대화샘솟는집에서
번역하였습니다.

본 저널은 대화샘솟는집에서
번역하였습니다.